

## 준비된 어른을 향한 첫 걸음



대구시 동구 안심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청소년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인권 기반 공동체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2021년 6월 개최된 청소년의회 '안심아일랜드'의 모의총선거.

대구 동구 안심동은 낙후된 구도심과 새 아파트가 늘어난 신도심이 맞닿아 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삶의 격차가 크지만 세상은 울타리를 치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여럿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우며 한 단계씩 성장할 수 있다.

안심종합사회복지관 배진우 사회복지사의 고민도 여기서 시작되었다. “중학생 때 방향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됐지만 청소년 시절에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울 수 있었다면 내 인생이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이 한데 모여 청소년 활동을 제안하고 활동하다보면 더불어 살아가는 준비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안심종합사회복지관의 이러한 도전은 2020년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소외·아동 청소년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현실화 될 수 있었다.

기존의 다른 사업들이 단순히 청소년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 사업은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의 토양 자체를 바꿔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청소년 정책 제안, 동아리 운영, 교양교육, 전용공간 구축 등을 통해 청소년 친화마을을 조성하는 안심지역 청소년 인권 기반 공동체 육성 사업의 시작이었다.

### 청소년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말하다

2020년 10월,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의회 ‘안심아일랜드’가 시작됐다. 시민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선언하며 ‘똑같당’, ‘올리브당’, ‘도비는 자유당’ 등 총 3개의 정당을 만들고 활동에 돌입했다. 사업에 참여한 30여 명의 아이들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청소년 정당별 행정을 지원하는 의

회사무국도 구성해 운영했다.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을 통해 100인의 원탁회의도 진행해 마을을 바꾸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모인 의견은 대구광역시가 주최한 '대구광역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청소년 토론회'에 전달됐다.

청소년들의 대외활동은 계속됐다.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내 와이파이 공유기 사용제한 해제, 중·고등학생 등하교 대중교통비 할인 지원 등 청소년의 시각에서 낼 수 있는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청소년 조례안을 작성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활동에도 참여해 총 4건의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시청에 제출했다. 다양한 또래 관계를 맺으며 활동을 기획하는 과정을 통해 안심아일랜드 청소년들은 자기주도성을 가진 적극적인 청소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 정답은 결국 청소년에게 있다

2021년에도 청소년의회 안심아일랜드 총선거가 열렸다. 3개 정당의 후보들이 출마해 열띤 선거를 펼쳤다.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의회 2막의 시작이었다.

청소년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심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경제적 여건으로 할 수 없었던 자신의 꿈을 담은 자기성장계획서를 심사, 선정해서 지원하는 '자기성장 꿈찾기'는 실제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계획하고 반영하도록 해 인기가 높았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주제를 하니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이 배진우 사회복지사의 말이다. 또 지역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제로페이 업체를 청소년이 직접 섭외해 홍보하고 할인쿠폰을 배포했고, 지역 내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해 진로탐색, 플로리스트, 여행, 연극관람, 댄스 등 다양한 동아리를 발굴, 청소년의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증진했다.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소통하는 청소년 라디오 '단편라디오', 청소년과 기성세대간 문화적 세대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한 '세대공감 마음톡톡', 청소년이 희망하는 활동을 조사해 진로를 탐색해보는 사회적경제 체험활동, 청소년 책모임인 청소년 시민학교 등 청소년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획으로 진행됐다.

배진우 사회복지사는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는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며 결국 정답은 청소년이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인다.



더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해 토론한 100인의 원탁회의는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도 병행했다.

## 관심과 소통으로 준비된 어른이 되어가는 청소년들

안심아일랜드 청소년들 뒤에는 청소년통합안심네트워크가 있다. 청소년통합안심네트워크는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안심지역 5개 중학교(강동중, 새론중, 신기중, 안심중, 울원중), 동구가족센터,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구청소년문화의집아름드리 등 총 10개 기관이 함께한다. 모든 기관이 참여한 공동사업으로는 청소년 기초 학습 및 심리정서 지원을 목적으로 한 멘토링, 건기를 하며 쓰레기를 줍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우리 마을 플로킹(Ploking), 청소년 유관 기관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 협력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을 지지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아이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었다.

준비된 어른이 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접하며 이해와 사고의 폭이 넓어진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설날, 어버이날에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은 안심아일랜드 안에서 보호 받는 청소년이었다가, 청소년 정당 소속의 정치인이었다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모두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사는 마을을 들여다 볼 줄 아는 관심,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 사람들과 어울려 소통할 줄 아는 마음, 자기의 생각을 소신껏 표현할 수 있는 정신을 배운 것만은 분명하다. 이들의 다음, 그 다음 걸음이 기대되는 이유다. 글 이지연 작가